

신교 다리

요리모강을 건너 우사 신궁으로 들어가는 모든 다리는 신사 경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교 다리(神橋, 신성한 다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북쪽, 신사의 큰 참배길에 놓여진 아치형의 다리는 특별히 ‘신교 다리’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리의 측면과 난간에는 불행과 사악함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하는 밝은 주홍색이 칠해져 있으며, 측면에는 3개의 쉼표가 소용돌이 모양으로 서로 얹혀 있는 ‘미쓰도모에’ 문장 등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하치만 신을 모시는 신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사 신궁에 칙사(천황의 사신)가 파견될 때마다 새로 설치되던 목제 임시 다리를 대신해 1910년에 처음으로 영구적인 목적에서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이 다리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크림색을 띠고 있어 ‘시로하시(白橋)’라고도 불리며 자동차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신궁의 큰 참배길에 있는 주홍색의 ‘신교 다리’는 쇼와의 대재건(1932~1941)이 이루어지면서 1941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두개의 다리를 비교해 보면, 일직선으로 오토리이(큰 도리이)를 통해 신궁의 신성한 영역에 들어간다고 명시한 신교 다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